

# 구술자료 상세목록

사업명	미추홀, 살아지다1 ‘신기촌 사람들’				
구술자명	최종철	면담자	이경희, 이명순, 조영숙		
면담장소	주안7동 경로당	면담지원	-		
면담 일시	2019년 7월 11일	회차	1	시간	분 초
자료번호	Mi chuholCA-07-00001167				
구술 개요	<p>평택군 출신으로 69년에 신기촌에 이사와 88세까지 살고 있음. 시로부터 10평씩 땅을 불하받음. 남녀 할 것 없이 진흥도자기 공장에 다님. 길이 생기고 난 후 마을버스가 다님. 69년 당시 하인천 파와 신흥동, 옥번동 파가 있었음. 10평의 작은 주택들이 주를 이룸. 동네에 진흥도자기 공장에 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음. 신기촌 이주 후 3~4년 뒤 신기시장이 형성됨. 신기시장 주변으로 우물과 중국인 밭이 있었음. 집을 팔고 이사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번씩 바뀜.</p>				
주요 색인어	<p>인하대, 갯벌, 하꼬방, 10평, 신기촌, 진흥도자기, 마을버스, 하인천, 신흥동, 옥번동, 논, 신기시장, 우물, 버스정류장, 10m 도로, 우진아파트, 슬레이트, 루핑, 양계장</p>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	
1. 소개			-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8세로, 평택군 오산원 서탄면 출신임.</li> <li>- 69년 5월에 이사 와서 계속 살고 있음. 인하대 앞 갯벌 앞의 하꼬방(판잣집)이 철거되면서 이동함.</li> <li>- 원래 중국사람들이 농사짓던 땅을 시로부터 10평씩 불하받음.</li> <li>-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느라 동네일을 잘 알지 못함.</li> </ul>					
2. 신기촌 & 신기시장에서의 기억			-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녀 할 것 없이 진흥도자기 공장에 다님. 아내도 새벽에 도자기 공장에 나가 일함.</li> <li>- 자녀들은 문학초를 졸업함. 큰아들이 58세, 그다음이 56세.</li> <li>- 시장 안 순대골목이 원래 주차장 자리였음.</li> <li>- 크기가 작은 마을버스가 주차장 자리에 1시간에 한 번씩 다님. 원래 길이 없어 버스가 다닌 것은 나중의 일임.</li> </ul>					
3. 신기촌 형성 초기			-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9년 당시 하인천 파와 신흥동, 옥번동 파가 있었음.</li> <li>- 신흥동에서 온 사람들은 신흥아아파트 자리, 하인천에서 온 사람들은 그 아래쪽에 자리를 잡음.</li> <li>- 73년 무렵에는 나머지 땅에 개개인이 집을 짓고 살았음.</li> <li>- 시장 건너편 도로는 전부 논이었음.</li> </ul>		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평짜리 작은 주택들이 주를 이룸.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는 2~3층 건물을 짓기도 함.</li> </ul>		
<p>4. 진흥도자기 공장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네에 도자기 공장에 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음.</li> <li>- 2교대로, 아침 7시에 나가서 5시 반에 끝나는 것인데 일하고 나면 8~9시가 됨.</li> <li>- 오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벽에 퇴근함.</li> <li>- 거의 12시간 동안 근무함.</li> </ul>	-	
<p>5. 신기시장의 형성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아내가) 진흥도자기에서 일할 때는 시장이 없었음. 신기촌에 온 뒤 3~4년 후에 생겼음.</li> <li>- 신기시장 주변으로 하꼬방, 우물이 있었음.</li> <li>- 우물은 버스정류장 근방, 10m 도로 옆, 우진아파트 앞 목욕탕 자리에 각각 있었음. 우물물은 식수로 이용함.</li> <li>- 목욕탕 밑으로 내려가는 일대가 다 중국 밭이었음.</li> </ul>	-	
<p>6. 마무리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을 팔고 이사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번씩 바뀜.</li> <li>- 지금 사는 집도 몇 차례 수리함. 초창기 동네 지붕은 슬레이트 혹은 검은 루핑을 얹었음.</li> <li>- 10평씩 잘라서 나누어 줬는데 모두 한 자 이상씩 떨어져 있음.</li> <li>- 현득수 선생님은 과거 양계장을 하셨음.</li> </ul>	-	